

99. 알미늄 포일 생산 근로자에서 발생한 안면신경마비

성별 남 **나이** 42세 **직종** 가공지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나OO은 1986년 10월 1일 OO알미늄(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년 3월 16일 안면신경마비(Bell's palsy) 진단을 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나OO의 작업은 단재과에서 알미늄 코일의 양쪽 변을 잘라내는 단재기를 작동하는 업무를 하였다. 작업공정은 원자재인 두꺼운 알미늄 코일이 입고 되면 압연공정에서 얇게 펴서 알미늄 은박지로 만든 후 절단 공정을 거친다. 이를 가지고 포장용 비닐, 종이 등과 붙여 포장지를 생산한다. 압연공정에서는 원자재인 두꺼운 알미늄 코일을 압연기에서 얇게 피며 여기에 압연유가 사용된다. 나OO는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알미늄 은박지 코일을 단재 기계에 장착하고 기계를 작동시켜 은박지의 양쪽 면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였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된 2005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이 공식적인 휴일이 되었으나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연장근무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2006년 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는 12시간 맞교대로 작업을 하였다. 실내에서 작업을 하였고 열이 발생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작업장 환경은 춥지 않았다고 한다. 작업환경측정은 단재반의 경우 소음만 측정하였는데 대부분이 80~85dB에 속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근로자 나OO은 군대가기전에 폐결핵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먹었다고 한다. 흡연은 군 복무 중 시작하였고 보통 한달에 1갑 미만으로 담배를 피웠다. 술은 보통 일주일에 1회 정도, 주량은 소주 1병과 맥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한다. 건강진단은 비활동성폐결핵이 있었으며 그 외에는 특이 소견 없었다. 2006년 3월 16일 발음이 부정확지는 증상 등으로 OO병원을 방문하여 안면신경마비(Bell's palsy) 진단받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OO 한방병원에서 2006년 4월 7일까지 입원치료 받았다. 현재는 얼굴 근육 운동의 이상은 없으나 감각의 둔마감을 호소하였다. 2006년 2월 3일에는 감기 증상이 있어 개인의원에서 치료받았으며 3일간 약을 먹은 경력이 있었다.

4. 결론: 근로자 나OO은

- ① 근무 중 안면신경마비(Bell's palsy)가 발생하였는데,
- ② 1개월간의 서울공장 파견근무, 이 후 3교대에서 12시간 맞교대로 교대 방식이 변경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 ③ 바이러스 감염이 Bell's palsy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Bell's palsy를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 나OO에서 발생한 안면신경마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었다.